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OECD Education 2030 역량 반영도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competencies presented in OECD education 2030 and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 Focusing on the degree of reflection of competency

박 지 현**

Ji-Hyun Park

초록 본 연구는 OECD education 2030의 역량이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중학교)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문헌연구, 전문가 협의회, OECD 온라인 회의 등을 통해 검토되었다. 개별 역량별 분석 결과, 협력, 공감, 새로운 가치 창조, 활동/행동 관련 역량의 반영도가 높았던 반면, 수리력, 지속성, 학습하는 방법 학습, 긴장 해소, 예측, 컴퓨팅 관련 역량의 반영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량의 범주별 분석 결과, 주요 개념 역량, 기능/태도/가치 구인 역량, 변혁적 역량 및 역량 개발, 기초 소양 역량, 복합 소양 역량 순으로 반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역량, OECD, OECD education 2030

Abstract The study analyzed how the competencies presented in OECD education 2030 are reflected in the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dividual competencies, cooperation, empathy, creation of value, and action were highly reflected, but numeracy, persistence, reconciling tensions and dilemmas, computation were lowly reflect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mpetency categories, it was found that key concepts, skills, attitudes & values constructs, and transformative competencies and competency development competencies are highly reflected in the curriculum, and the level of reflection of foundational literacies and compound competencies competence is relatively low.

Key words: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 competency, OECD, OECD education 2030

* This paper was reconstructed by modifying the researcher's work in Lee et al.(2018) research report from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 Corresponding author, E-mail: jhp@gnue.ac.kr

© 2019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All rights reserved.

<http://dx.doi.org/10.30775/KMES.48.4.161>

I. 서론

미래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방향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으며 다양한 삶의 양상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더 이상 특정 내용이나 지식의 습득으로 살아가기에 한계가 있어서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강조된다. 이러한 교육은 지식, 기능, 태도, 가치 등을 포괄하는 역동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인 ‘역량(competences)’으로 연결되며, 앞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고 이를 함양하는 교육은 어떠한 것인지에 관한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처럼 교육에서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여러 나라들에서 역량 교육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수행하여 왔는데, 대표적으로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역량 프로젝트는 전 세계 교육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계에서 본격적인 역량 연구의 기반이 된 것은 OECD에서 1997년부터 수행한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es)’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가 제시되었고 이후 많은 나라들에서 학교 교육에 필요한 핵심 역량 탐색의 토대가 되었다.

이 DeSeCo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OECD는 당시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핵심 역량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계속 적합할 것인가를 재고하기 위하여 최근 2015년부터 또 다른 역량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다. DeSeCo 프로젝트의 후속 연구로서 새로운 역량 체계를 제시하기 위한 것인데, 2030년대를 살아갈 미래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한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The OECD Education 2030’(이하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이다(Lee et al., 2017;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8; OECD, 2018a). OECD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전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역량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역량을 제안한다. 즉 DeSeCo에서는 삶에 필요한 ‘핵심(core, key)’ 역량에 초점을 두었는데, 새로운 OECD education 2030에서는 이와 더불어 불확실한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변혁적인(transformative)’ 역량에도 주목하며 매우 다양한 역량들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더욱더 빠르게 변화해가는 미래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몇몇 특정 역량의 강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음악교육 분야에서는 역량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많은 함의를 주었다. 즉 음악과 역량의 본질에 대한 연구(Ju, 2017), 음악 교과 역량의 구현 방안 연구(Song, 2015), 실제적 적용 연구(Park & Yang, 2018), 그리고 음악과 역량의 국제 비교 연구(Lee, 2011; Yang, 2017) 등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DeSeCo에서부터 이어지는 주요 몇몇 핵심 역량들을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

새로운 OECD 역량의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아니다. 2020년을 바라보는 현재는 2000년대 초반보다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불확실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움직임 속에 있다. 이러한 사회 변혁 속에서 미래를 살아가게 될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새로운 관점에서 재고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최근 OECD에서 새롭게 제안한 역량들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도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현행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역량과 내용은 DeSeCo 프로젝트에서 이어지는 역량 연구들의 결과이자 산물로, 시기적으로 볼 때 OECD education 2030의 역량 및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OECD 프로젝트는 DeSeCo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바, 기 개발된 교육과정의 내용을 새로운 프레임으로 분석해 봄으로서 향후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 시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분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ECD education 2030에서 제안하는 역량이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향후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970년대 처음 소개된 이후로 역량은 교육계에서 주된 이슈가 되어 왔다. 특히 학교에서의 역량 기반 교육은 OECD가 수행한 DeSeCo 프로젝트로부터 본격화되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미래 사회에 필수적인 핵심 역량으로 '상호작용적으로 도구 활용하기(use tools interactively)', '이질적 집단에서 상호교감하기(interact in heterogeneous groups)', '자율적으로 행동하기(act autonomously)'의 범주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세 범주 각각에 세 가지의 하위 역량을 제시하며 총 9개의 핵심적인 역량을 강조하였다(OECD, 2005). 이러한 DeSeCo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규명하고자 많은 연구와 논의들이 수행되어 왔고(Ju et al., 2018), 우리나라에서는 비로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량이 명시화되었다. 최근 OECD는 지난 DeSeCo 프로젝트의 결과를 재검토하고 보다 미래 지향적인 교육과정 개혁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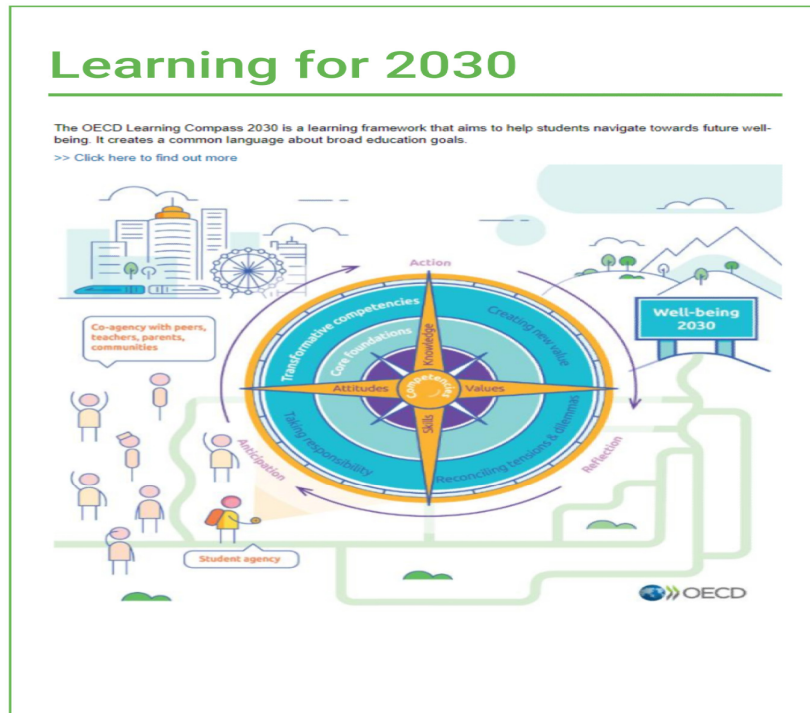
1. OECD education 2030과 역량

OECD는 교육정책위원회(Education Policy Committee: 2015년 4월 개최)에서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총 두 단계로 진행되는 연구이다(Lee et al., 2018). 2015-2018년까지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규명하여 이 역량 함양을 위한 학습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국제 수준에서의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어서 2019년부터 수행되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역량 함양을 위한 보다 실제적인 방안을 탐색하여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 및 학습 환경, 교사 역량 등을 탐구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첫 단계로 작년까지 수행되어 개발된 ‘학습 프레임워크(learning framework)’와, 교육과정 분석으로 수행된 ‘교육과정 내용 맵핑(curriculum content mapping: 이하 CCM)’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1) OECD 학습 프레임워크

OECD 학습 프레임워크는 “미래 학생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는 무엇인가? 이러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를 함양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Lee et al., 2017). 즉 미래 사회 필요 역량 규명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해주는 교육 체제의 토대도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전 프로젝트보다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OECD는 핵심적인 기본 역량들(core foundations)과 더불어 ‘새로운 가치 창출(creating new value)’, ‘긴장과 딜레마 해소(reconciling tensions and dilemmas)’, ‘책임감(taking responsibility)’ 등의 변혁적인 역량들(transformative competencies)을 중요하게 제안하고 있다(OECD, 2019).

현재까지 수행된 학습 프레임워크의 결과는 다음 [그림 1]과 같다(OECD, 2019). OECD 학습 프레임워크는 앞으로 2030년대를 살아갈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자신의 공동체에서 ‘웰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예측하고(anticipation), 행동하고(action), 반성하는(reflection) 사이클을 통하여 함양됨을 강조한다. 이를 다음 그림과 같이 ‘the learning compass 2030(학습 나침판)’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불확실하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길을 안내하고 나아갈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Figure 1] OECD learning framework(OECD, 2019)

2) OECD 교육과정 내용 맵핑(CCM): 역량과 음악 내용

교육과정 내용 맵핑(CCM)은 OECD education 2030 역량을 각 나라의 교과 교육 과정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탐색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CCM 작성을 위하여 OECD는 교과별 mapping grid를 제공하였는데, 가로축은 역량을 그리고 세로축은 내용 코드(content code)를 제시하고 있다(OECD, 2018a; 2018b). 이 mapping grid에 각 교과 교육과정의 반영 정도를 숫자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서 CCM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교육과정의 역량 반영도를 분석할 수 있다.

(1) OECD 역량

가로축의 OECD 프레임워크에 포함된 역량은 '기초 소양(Foundational Literacies)', '기능, 태도 및 가치(Skills, Attitudes & Values Constructs)', '주요 핵심 개념(Key Concepts)', '변혁적 역량과 역량 개발(Transformative Competencies and Competency

Development)', '복합 소양(Compound Competencies)'의 5개 범주로 나누어진 총 28개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기초 소양은 2030년 미래의 삶을 보다 잘 살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인 리터러시를 일컫는데, 세부 역량은 다음과 같이 5개이다: 1) 문식성(literacy)= 문자, 음성, 시각적 텍스트를 평가 및 활용하는 능력. 도형 같은 시각 텍스트도 포함; 2) 수리력(Numeracy)= 수학적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해석·소통하는 능력; 3) ICT/디지털 리터러시(ICT/Digital)= 네트워킹 구성 요소, 응용 프로그램/시스템 관련 용어로 디지털 세상에서 상호작용; 4)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 수학적 이해/기능(특히 통계)을 기반으로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수집, 창조, 소통하는 능력; 5) 체육/건강 리터러시 (Physical/health): 건강하고 능동적 삶을 위해 요구되는 육체심라·인지·사회적 역량을 결합하는 능력.

둘째, 기능, 태도, 가치 구인은 자신의 세상을 형성·변영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기능, 태도, 가치를 일컫는다. 세부 역량은 다음과 같고, 번호는 총28개 역량을 연속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위 번호에 이어서 제시하고 있다: 6) 협동/협력(Cooperation/Collaboration)=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일을 잘하고, 그룹에 헌신하며, 자신이 맡은 바를 수행; 7)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아이디어/해결책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평가하는 능력. 올바른 분석/평가를 끌어내는 추론; 8) 문제해결력(Problem Solving)= 어렵거나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 9) 자기관리 (Self-regulation)= 즉각적인 충동이나 감정, 표현을 조절하는 능력; 10) 공감(Empathy)= 배려하는 마음으로 타인과 공유하고 이해·대응할 수 있는 능력; 11) 존중(Respect)=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인간의 감정, 희망 등을 소중히 여기는 것; 12) 끈기/회복력(Persistence/ Resilience)=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반대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기질, “다시 회복되는” 기질; 13) 신뢰(Trust)= 신뢰성과 무결성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개인과 기관/조직에 대해 갖는 태도; 14) 학습에 대한 학습(Learning to learn)= 메타 학습으로, 학습 자체의 현상에 대한 인식과 이해.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을 통제.

셋째, 주요 개념은 OECD 학습 프레임워크의 토대가 되는 개념을 일컫는데, 세부 역량은 다음과 같다: 15) 학생 주도성(Student Agency)= 의도를 가진 주도권, 무력감과 반대되는 능력이나 성향. 자신이 처한 상황에 능동적 반응; 16) 협력적 주도성(Co-agency)= 상호 협조적 관계.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동료, 공동체 등 넓은 관계에 대해서도 인식.

넷째, 변혁적 역량 및 역량 개발은 미래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과 학생의 주도성 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역량인데, 세부 역

량은 다음과 같다: 17) 새로운 가치 창조(Creating)= 새로운 해결책/사고방식 등 2030년 대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식별하여 사회에 가치를 추가; 18) 책임감 가지기 (responsibility)= 개인과 집단의 웰빙을 위해 좋은 이유, 원칙, 그리고 진실성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능력; 19) 긴장/딜레마 해소(Reconciling tensions and dilemmas)= 긴장/딜레마 조정; 20) 예측(Anticipation)= 다른 사람의 의도/행동/감정 이해하고 이로 인한 장·단기 결말 예측. 준비성을 넓히는 능력; 21) 실행(Action)= 목적 위해 의지/능력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것; 22) 반성(Reflection)= 당연한 것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

마지막으로 복합 소양은 개인, 사회 및 환경 복지에 필수적인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포함하는 역량이고, 세부 역량은 다음과 같다: 23) 글로벌 역량(Global)= 지역, 글로벌, 상호문화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타인의 관점과 세계관을 이해하고 인식; 24)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소셜 미디어 등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하는 능력. 가짜 뉴스 구별 능력; 25)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양= 사회/경제/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인식; 26) 컴퓨팅 사고력/프로그래밍/코딩= 컴퓨터 기반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 프로그래밍 및 코딩; 27) 금융 소양(Financial literacy)= 재무적 문제와 재정적 지식/기술을 적용하는 능력. 자신의 예산 관리, 미래 비용 절감, 은퇴 계획 등; 28)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거나 필요를 충족시키는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 또는 해결책.

(2) OECD 음악과 내용

음악과 내용은 총 6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을 OECD가 제시한 코드 연번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코드 1’의 내용은 지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음악가, 작곡가, 음악 작품이 문화 유산에 미치는 기여 및 공헌, ‘코드 2’의 내용은 주요 음악 양식, 다양한 작곡 양식 등을 포함한 음악의 역사 및 지식, ‘코드 3’의 내용은 음악 작품의 생산·창조 활동 및 다양한 목적으로 작곡된 작품의 연주 활동, ‘코드 4’의 내용은 음악을 통해 표현된 느낌 및 아이디어와 관련된 활동, ‘코드 5’의 내용은 음악가처럼 생각하고 감상하는 방법, 음악이 삶에 기여하고 관련되는 방법, 그리고 ‘코드 6’의 내용은 음악에서 도덕적, 윤리적, 법적 문제(예, 저작권)이다.

2.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는 자기관리 역량을 비롯하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관련 역량 등 6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과 다른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기존의 교과 내용들을 실제 삶과 보다 연관되는 형태로 제시하고 삶의 다양한 영역에 여러 방식으로 적용하려는 시도(Lee et al., 2012)라 할 수 있다.

이 범교과 역량을 바탕으로 음악 교과 역량이 설정되었고, 이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음악과 내용 체계가 중학교 학습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다. 즉 음악의 구성, 자세와 연주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표현 영역, 음악 요소 및 개념, 다양한 형태의 음악, 음악의 역사적 및 문화적 배경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감상 영역, 그리고 음악과 행사산업, 세계 속의 국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생활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사실 각 역량이 어떤 내용과 얼마나, 어떻게 관련되는지는 교육과정에 명시화되어 있지 않아서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아래 내용을 토대로 교수학습이 실행될 때 궁극적으로 역량이 함양됨을 지향하고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우리나라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 중 중학교(Ministry of Education, 2015)를 대상으로 OECD 역량의 반영 정도를 분석하였다. OECD는 각 나라별로 동일 수준의 결과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ISCED 2(lower secondary level of education)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2. 연구 절차 및 방법

첫째, OECD education 2030, CCM 관련 자료, 역량 관련 문헌을 대상으로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OECD 분석 방법 및 절차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하여 1차 결과를 도출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교육과정 전문가 및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전문가 협의회, 그리고 OECD 주최 온라인 회의를 통하여, 도출된 1차 결과를 검토하였다. 즉 음악교육 전공 2인, 교육학 전공 2인 대상의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분석 결과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토를 실시하였고, OECD 담당 전문가 대상의 온라인 회의를 통해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 의견을 수렴하였다.

넷째, 상기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3. 분석 방법

첫째, OECD 프레임워크에 제시된 음악과 내용이 우리나라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중학교) 문서의 어디에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 때 OECD에서 제시한 음악과 내용이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에 아예 진술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n.a.(not applicable)'로 표기하고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둘째, 프레임워크의 역량이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 중 어디에 진술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즉 교육과정 문서의 성격 및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 중 어느 항목에 얼마나 제시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셋째, 음악과 내용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이 각 역량의 개념에 비추어 어떻게 진술되어 있는지 연결지어 분석한다.

넷째, 각 내용별로 역량의 반영 정도는 OECD가 제시한 1-4단계(OECD, 2018a, 2018b)로 표시한다. 단계별 맵핑 준거를 살펴보면, 1단계는 해당 역량이 교과 교육과정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실제 교수·학습 시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2단계는 해당 역량이 교과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적으로 진술되어 있지 않지만 평가기준, 교수-학습 자료, 교과서 등에 포함될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3단계는 해당 역량이 교과 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주된 목적이 아닌 경우(ex. 성격, 목표 등에 다소 덜 명료하게 진술된 경우), 4단계는 해당 역량이 교과 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면서 주된 목적인 경우(ex. 내용 등에 구체적으로 진술된 경우)이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OECD 역량의 반영도를 분석함에 앞서, OECD에서 제시한 총 6개의 음악과 내용이 우리나라 2015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문서에 어떻게, 어느 정도 대응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OECD 음악과 내용이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체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OECD에서 제시한 6번의 '음악의 도덕적, 윤리적 및

법적 문제(저작권) 내용은 우리나라 중학교 문서에서 명시적으로 찾을 수 없었다. 이전 교육과정인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고등학교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는데, 새로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역량의 반영도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1. 음악과 교육과정의 OECD 각 역량별 반영 정도 분석

1) OECD 각 역량별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대응

먼저 총 28개의 OECD 역량이 우리나라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의 어느 내용에 해당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예시를 5개 범주의 역량 연번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 소양 범주에 해당하는 총 5개의 역량을 살펴보면, 1번 역량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 내용은 ‘음악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다. 조사하여 발표한다.’, 2번 역량에 대응하는 문서 내용은 ‘주요3화음, 팔림7화음’, 3번 역량에 해당하는 문서 내용은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기기를 포함한 음향 시설을’, 4번 역량에 해당하는 내용은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자료를 수집, 분석, 분류, 평가’, 5번 역량에 해당하는 내용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창출...신체 등을 활용하여...’등으로 볼 수 있었다.

기능, 태도, 가치 범주에 해당하는 역량들을 살펴보면, 6번 역량에 대응하는 문서 내용은 ‘여러 사람과 함께 연주할 때에는 소리의 어울림을 느끼며’, 7번 역량에 해당하는 문서 내용은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고...역할과 기능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다.’, 8번 역량에 해당하는 내용은 ‘생활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9번 역량에 해당하는 내용은 ‘음악을 학습하고 그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10번 역량에 해당하는 내용은 ‘타인의 표현을 이해하고 공감하여...음악적 표현을 풍부하게 하고’, 11번 역량에 해당하는 내용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 능력을 지닌...’, 12번 역량에 해당하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음악 활동에 참여할 수...’, 13번 역량에 해당하는 내용은 ‘신뢰성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14번 역량에 해당하는 내용은 ‘음악이 가지고 있는 사회/인문/자연과학적인 특성들을 발견하여 음악에 대한 시각을 확장... 관련 과목에 대한 학습 효과를 증대’ 등으로 확인하였다.

주요 개념 범주에 해당하는 역량들의 분석 예시를 제시하면, 15번 역량 해당 내용은 ‘자기 주도적으로 음악 학습을 하고 그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16번 역량 해당 내

용은 '생활화 영역에서는 음악 관련 다양한 행사에 참여' 등인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변혁적 역량 및 역량 개발 범주에 해당하는 역량을 살펴보면, 17번 역량 해당 내용은 '악곡의 특징을 살려 자신만의 느낌으로, 창의적으로 표현', 18번 역량 해당 내용은 '자신의 역할 및 책임을 다할 수 있는', 19번 역량 해당 내용은 '공동체의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 20번 역량 해당 내용은 '소리를 탐색하고 그 특징이 나타날 수 있는 연주법으로 표현', 21번 역량 해당 내용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노래, 연주, 신체표현 등 다양한 활동', 22번 역량 해당 내용은 '학생이 음악 학습 전반에 대해 이해와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등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복합 소양 범주의 분석 예시를 살펴보면, 23번 역량 해당 내용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가치 및 문화를 수용', 24번 역량 해당 내용은 '정보 및 자료에 내재된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25번 역량 해당 내용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국악에 대해 조사하고', 26번 역량 해당 내용은 '전자 악기 등 다양한 여러 악기를 구비하여 활용한다.', 27번 역량 해당 내용은 '음악의 생산·소비·향유의 관계를 파악하여 음악의 활용 가치를 이해', 28번 역량 해당 내용은 '음악의 생산/소비/향유의 관계를 파악... 음악과 관련된 산업 조사'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2) OECD 각 역량별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관련도

위 범주별 대응 내용 예시를 바탕으로 각 내용별 역량의 관련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음악과 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읽고 쓴다는 진술은 없지만, 조사/토의/발표 등의 진술을 통해 '문식성(1)' 역량을 함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리력(2)'은 수학적 개념 형성 같은 거창은 수가 아니므로 음악과와 관련성이 낮긴 하지만, 화음 등 단순한 수준의 수적 원리를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분석하였다. ICT/디지털 리터러시(3)는 전자 악기 등 다양한 ICT/디지털 매체 학습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으나, 주로 '단순 활용' 정도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영하였다. 데이터 리터러시(4)는 '다양한 자료' 정도로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데이터 리터러시의 본래적 특성과 간접적 연계성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단하였다. 신체적/건강 리터러시(5)는 음악적 느낌을 신체를 통해 표현하는 활동을 강조하고, 삶의 질/행복 등의 심리적 건강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음악과와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협동/협력(6)은 합주, 합창 등 함께 하는 음악 활동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였고, 비판적 사고(7)는 교육과정 문서상에 분석/구별/평하기 정도의 수준으로만 기

술되어 있어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분석하였다. 문제해결력(8)은 성격 향에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이라는 기술이 있지만, 이러한 포괄적 진술 외에 내용 체계 등에서 그 구체적 내용을 찾기 어려워 이것도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검토하였다. 자기관리(9)는 음악학습 관리, 스스로 연습, 자세 유지 등에 대한 내용과 결부지을 수 있으므로 적절히 관련성이 높다고 보았다. 공감(10)은 서로의 음악적 표현을 풍부히 하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였고, 존중(11)은 타인의 음악적 표현을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끈기/회복력(12)과 관련한 명시적 부분은 찾기 어려웠다. 신뢰(13) 역시 문서상 진술에 한계가 있지만, 실제 음악 활동에서 신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다소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학습에 대한 학습(14)은 '음악적 시각을 확장하고 관련 다른 과목의 학습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다소 포괄적 진술이긴 하나 조금 관련된다고 볼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자기주도학습(15)은 스스로 생활화하는 자기 주도적 음악 학습을 문서상 강조하고 있음을 반영하였고, 협력적 주도성(16)은 합주/합창 등 협업 활동이나, 생활 속 행사 참여 등 학생-학생, 학교-지역 간 협력을 강조함을 반영하였다.

새로운 가치 창조(17)는 교육과정 문서에 중요하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평가하였고, 책임감(18)은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약하지만 실제 음악 활동에서 책임이 암묵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다소 반영하였다. 긴장과 딜레마 해소(19)는 문서상 구체적 언급이 부족함을 반영하였다. 예측(20) 역시 소리 탐색 정도의 문서상 진술로 다소 연결해 볼 수도 있으나 명시적 진술이 미흡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평가하였다. 실행(21)은 노래, 연주, 신체활동 등 음악과에서 중요하게 진술되는 내용이므로 이에 걸맞게 평가하였고, 반성(22)은 실제 음악 활동에서는 필요하나 문서상 명시성이 부족하여 다소 낮게 평가하였다.

글로벌(23)은 다문화 관점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였고, 미디어 리터러시(24)는 포괄적 진술로 간단히 진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평가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25)은 음악과에서 명시적으로 없긴 하나, 유네스코 등의 언급에서 일부 연결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컴퓨팅/전산 사고(26)는 전자 매체 활용 등에서 연결해 볼 수 있으나, 프로그래밍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단순 '활용'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금융 소양(27)은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산/소비/향유' 등의 포괄적 진술 통해 일부 유추 가능하다는 점에서 평가하였고, 기업가 정신(28) 역시 음악 산업, 유통 등의 포괄적 언급을 통해 일부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상과 같이 역량에 해당하는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OECD 역량이 음악과 과정 문서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역량을 포괄하는 정도, 진술의 구체성, 등장 빈도 등에 있어서는 역량마다 편차가 다양하였다. 그를 고려하여, 각 역량의 관련 정도를 1-4단계로 맵핑한 결과를 다음 [Figure 2]와 표시하였다. [Figure 2]의 표시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Table 1>과 같다.

[Figure 2] Examples of mapping between OECD competencies and music content

Mus-ic	OECD Competency num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	3	1	1	2	1	2	2	2	2	3	3	1	2	1	2	2	2	2	1	1	3	2	4	1	2	1	1	1
2.	4	1	1	2	1	2	2	2	2	2	3	1	2	1	2	2	2	2	1	1	2	2	4	1	1	1	1	1
3.	2	2	3	2	3	4	3	3	3	4	3	2	2	2	4	4	4	3	1	1	4	3	3	2	2	2	2	1
4.	2	1	2	1	2	4	3	3	4	4	4	2	3	1	4	3	4	3	1	1	4	3	2	2	1	1	1	1
5.	2	1	2	2	2	3	2	3	3	4	4	1	2	1	4	3	3	2	1	1	4	3	2	2	2	1	2	2
6.	n.a.																											

2. 음악과 교육과정의 OECD 범주별 역량 반영 정도 분석

1) 평정 단계별 역량 반영도

상기의 분석 결과를 1-4단계의 평정 척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과 매우 관련도가 높은 '4단계'에 해당하는 역량은 협동/협력, 공감(소통), 새로운 가치 창조,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관련도가 높은 '3단계'에 해당하는 역량은 리터러시, 신체적/건강 리터러시, 자기조절통제, 존중, 자기주도 학습, 상호협력/상호작용, 글로벌 역량이었고, 관련도가 보통인 '2단계'에 해당하는 역량은 ICT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신뢰, 책임감, 반성/반영, 미디어 리터러시, 지속가능한 발전, 경제적 리터러시, 기업가 정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리력, 지속성/탄력성, 학습하는 방법 학습, 긴장/딜레마 해소, 예측/기대, 컴퓨팅/전산 사고 등에 관한 역량은 우리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1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범주별 역량 반영도

'기초 소양', '기능, 태도 및 가치', '주요 개념', '변혁적 역량 및 역량 개발', '복합 소양' 등 OECD가 분류한 총 5개의 범주별로 역량의 반영 정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 소양 영역에서는 문식성(문해력), ICT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체육 및 건강 리터러시 역량의 반영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수리력, 데이터 리터러시 관련 역량은 반영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래나 악기 연주 등과 같은 표현적 활동뿐 아니라 음악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발표하거나 토의하는 것도 우리나라 음악교육에서 중요하게 언급된다는 점이 문식성에 반영된 것이며, 음악에 어울리는 움직임과 같은 신체 표현 역시 음악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이 체육 및 건강 리터러시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음악 관련 데이터 분석, 전자 악기 활용 등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ICT 리터러시에 대한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능, 태도 및 가치 영역에서는 공감, 존중, 협동 및 협력, 자기관리,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 신뢰 순으로 우리나라 음악과 내용과의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끈기나 회복력, 학습에 대한 학습 관련 역량의 반영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과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음악적 표현을 이해 및 공감하고 타인의 음

악적 표현을 공감 및 존중하며 합주나 합창 등의 활동을 통해 함께 협업하도록 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음악과 내용은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사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이 반영된 결과이다.

셋째, 주요 개념 영역에서는 학생 주도성, 그리고 협력적 주도성 역량 순으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음악과 내용은 스스로 혹은 여러 사람과 함께 다양한 표현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생활 속에서 음악 활동을 접목하여 생활 속 음악 행사에 스스로 참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넷째, 변혁적 역량 및 역량 개발 영역에서는 실행 역량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새로운 가치 창조하기, 반성, 책임감 가지기 역량 순으로 관련성이 높았다. 그러나 긴장 및 딜레마 해소하기, 예측 관련 역량의 반영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음악과는 연주, 노래, 신체표현 등의 활동 및 행동 중심의 수행 교과임이 높게 반영된 것이며, 기존의 음악을 그대로 습득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다양한 음악적 가치 함양을 강조하고 있음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자신의 음악적 표현 및 창작 활동에 책임을 지고 자성적 태도로 돌아보며 재구성하는 측면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앞으로는 음악 활동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딜레마나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 음악과 관련한 미래를 예측하며 계획하고 활동하는 방법 등도 음악과 내용으로 담으려는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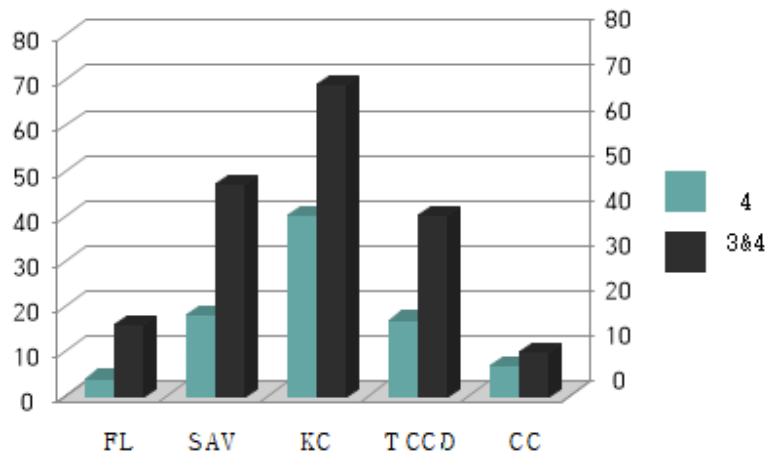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복합 소양 영역에서는 음악과 내용이 다른 영역의 역량보다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가장 낮은 영역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글로벌 역량과만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양한 나라/문화 및 지역의 음악을 배우고 사회문화적인 맥락 하에서 음악이 어떻게 파생되었는지 학습하는 것이 음악 교육의 주요 내용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글로벌 역량 외 나머지 역량들인 컴퓨터 관련 사고, 금융, 기업가 정신 등은 음악 내용과 결부되기에 분명 한계가 있긴 하다. 하지만, 연주, 창작 등의 음악 내적 표현 활동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이나 산업과 연계된 음악 외적 내용, 예컨대 음악 유통, 음악의 생산과 소비, 경영 등의 내용이 음악과의 학습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금융, 기업가 정신 등의 타 복합 소양 역량 함양도 음악과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3) 범주별 역량 반영도 종합

위 정리 결과에 따라 ‘기초 소양(Foundational Literacies: FL)’, ‘기능, 태도, 가치(Skills, Attitudes & Values: SAV)’, ‘주요 개념(Key Concepts: KC)’, ‘변혁적 역량

및 역량 개발(Transformative Competencies and Competency Development: TCCD), '복합 소양(Compound Competencies: CC)' 등 OECD가 분류한 총 5개의 범주별로 역량의 반영 정도를 종합 정리하면 다음 [Figure 3]과 같다. 관련도가 높은 맵핑 단계인 3과 4의 비율을 종합한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음악과 내용은 주요 개념 역량과 관련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 태도 및 가치 역량과 변혁적 역량과의 관련성이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합 소양, 기초 소양 역량과는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음악과 내용이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인 음악적 표현을 강조하고, 이러한 음악적 표현 속에서 다른 학습자의 표현을 공감, 존중하도록 하는 학습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복합 및 기초 소양의 반영도가 낮은 것은 금융, 기업가 정신, 수리력, ICT 등이 음악 고유의 특성상 관련성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Figure 3] Comprehensive Results of OECD competencies in Music Curriculum

V. 결론 및 제언

OECD가 최근 수행하고 있는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는 2000년대 초반 DeSeCo 역량 연구에서 제안한 핵심 역량 제시를 넘어 변화하는 사회를 대비하는 변혁적 역량 등 다양한 역량을 제시하고 역량을 둘러싼 교육 시스템과 환경에도 관심을 갖는 등 이전보다 훨씬 진일보하였다. 이렇게 진일보한 역량 프레임을 기 개발된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현주소 및 개선 가능성을 진단해 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OECD 역량이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상에 해당 역량이 진술된 항목(성격, 목표, 내용 등), 진술된 수준, 구체성 정도, 등장 빈도 등에 있어서는 역량마다 편차가 있었고, 이런 점에서 역량 반영도를 1-4단계로 분석함에 있어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 경향성을 통해 음악 교과가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량을 기르기에 적합한 교과임을 입증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다음 사항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먼저 상대적으로 반영도가 낮은 역량들, 즉 수리력, 학습에 대한 학습, 끈기/회복력, 긴장과 딜레마 해소하기, 예측, 컴퓨팅 사고력/프로그래밍/코딩, 지속 가능한 발전 소양, 금융 소양, 기업가 정신 등에는 좀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역량들 자체가 음악적 특성과 덜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교육과정 문서를 개정할 때 이에 대한 측면을 어떻게 하면 좀더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 예컨대 음악 내용적 측면에서 더 관련지어 진술할 수도 있고, 이것이 쉽지 않다면 방법적인 측면에서라도 연결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분명 있겠지만, 범교과적으로 언급되는 역량들이 음악 교과 수업을 통해 모두 함양될 수 있음이 문서상 보여진다면 음악 교과의 중요성도 더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OECD에서 제시한 음악 내용 중 '음악의 도덕적, 윤리적 및 법적 문제(저작권)' 부분은 현행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 이전 교육과정인 2009 개정 교육과정 문서에 있었던 내용이기도 해서 실제 학교 수업에서는 하나의 소재로서 활용되고 있을 수 있지만, OECD 방침에 따라 문서상 진술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포함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음악 저작권 등 윤리적, 법적 문제가 음악에서 점점 더 논란거리로 제기되는 바, 이에 대한 내용이 차기 음악과 교육과정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연구는 교육과정 문서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실제에 기반한 역량 반영도 분석이 요청된다. 둘째, 우리나라 및 OECD 다른 나라의 음악과 교육과정 맵핑 결과를 국제 비교하여 각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청각적 리터러시 역량에 관한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리터러시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각적인 문자나 자료를 해독하는 문해력/문식성 외에도 수리력, 금융 리터러시, ICT/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체육 리터러시 등 다양한 리터러시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음악적/청각적 자료를 해독하는 것과 관련된 리터러시, 예컨대 귀를 통한 청각 정보 수용이

나 악보 읽고 쓰기 등과 관련한 리터러시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인간이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 기존에는 인쇄된 시각적 문자가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신체적, 감각적인 다양한 방식을 통해 습득하는 정보에의 노출이 많다는 점에서 청각적 정보 습득 및 해독에 대한 리터러시 연구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음악계에서의 노력을 통해 OECD 같은 범교과 단체들이 청각적 리터러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음악 내용이 범교과적인 다양한 역량들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음악과에서 부족한 역량이 무엇인지 검토할 수 있었고 어떠한 역량과 내용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 및 내용 보완 시 교육과정 문서에 어떻게 진술하여야 하는지, 학교 현장에서의 음악적 실제성을 담을 수 있는 진술은 무엇인지 등을 고민할 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현재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역량은 주로 성격 항에 제시되어 있는데,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에는 보다 다양한 역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역량을 반영함에 있어 성격 항과 더불어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Ministry of Education (2015). *Music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Notice 2015-74.
- Park, J. H. & Yang, S. Y. (2018). The development of a textbook model for enhancing the music competency in the music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1), 101-121.
- Song, J. H. (2015). A study on the music subject competency in the school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4(4), 117-146.
- Yang, J. M. (2017).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core competence and musical competence: Korea, Japan, Singapore, the United Kingdom, and USA.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6(4), 77-103.
- Lee, K. E. (2011).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traditional music contents of the music curricula among Korea, Japan, China, and Hong Kong.

-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5(2), 97-114.
- Lee, K. H., Kwak, Y. S., Lee, S. M., & Choi, J. S. (2012). *National curriculum initiative for cultivation of core competencies for future society*.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Research report (RRC 2012-4). Seoul: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Lee, K. H., Lee, M. K., Ji, J. Y., Byun, H. H., Kim, K. C., Yoo, C. W., Lee, J. Y., Kim, J. Y., & Yoon, J. J. (2017). *A comparative study of competency-based curriculum according to OECD education 2030 curriculum survey*.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Research report (CRC 2017-8). Seoul: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Lee, M. K., Seou, J. Y., Byun, H. H., Lee, K. H., Kim, K. C., Yoo, C. W., Lee, J. Y., Kim, J. Y., & You, K. J. (2017). *OECD education 2030 curriculum content mapping: Focusing on physical education and mathematics*.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Research report (RRC 2017-6). Seoul: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Lee, M. K., Seou, J. Y., Lee, K. H., Cho, S. M., Kim, K. C., Yoo, C. W., Kim, J. Y., Lee, J. J., & Lee, Y. J. (2018). *OECD education 2030 curriculum content mapping participation study*.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Research report (RRC 2018-12). Seoul: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Ju, D. C. (2017). Contemporary perspectives on schiller's aesthetic education in terms of core competence education.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30, 201-216.
- Ju, D. C. et al. (2018). *Trends and challenges in music education research*. Seoul: Hakjisa.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8). *OECD education 2030 learning framework (draft)- Education for a better world*.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8.02.16.). Seoul: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OECD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Unpublished manuscript.
- _____. (2018a). *CCM draft competencies framework for main study*.

Unpublished manuscript.

_____ (2018b). *CCM main study: Revised proposal for curriculum content mapping*. Unpublished manuscript.

_____ (2019).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Date of connection 07.01.2019. <http://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

Received: 31 August 2019, Reviewed(Revised): 2 October(5 October) 2019

Accepted: 5 October 2019, Published: 30 November 2019

Ji-Hyun Park: E-mail: jhp@gnue.ac.kr

Associate Professor, Dept. of Music Education,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55 Pilmundaero, Buk-Gu, Gwangju, Korea